

여수시-건설노조, 정책협약 체결



5일 오전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시·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여수시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시발주 관급공사현장의 지역민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약속했다.

5일 시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수시청에서 주철현 시장, 광주전남건설지부 남상배 지부장,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지부

지역민 우선 고용·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 고령화 극복 '건설기능학교' 설립 추진키로

장이 근로자 권리 보호와 안전한 건설현장,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급공사업체에 지역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도급업체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권장 등을 담고 있다.

또 ▲불법 하도급 단속, 표준 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도 담았다.

시는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기능학교'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고 건설 노동자들도 안전한 건설현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남상배 광주전남건설지부장은 "법과 제도화된 내용이 건설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여수시와 건설노동자들이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정책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 우선 고용, 지역 업체 우선 이용, 지역 물품 구매라는 민선 6기 시정철학이 바탕이다"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황칠 품은 장흥한우, 맛과 영양 '최고'

황칠나무와 장흥한우를 접목한 '황칠한우 신선육'이 시식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장흥군은 지난 5일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의 한 한우전문점에서 '황칠한우 신선육 개발 시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요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날 시식회에는 장흥군, 장흥군의회, 순천대학교, 외식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

황칠나무는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자생하는 식물로, 인삼, 가시오가피와 함께 세계 3대 파나스(인삼) 계열의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다.

나무껍질을 상처를 내면 황색 액이 나와 열효나 도료로도 사용됐으나 최근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황칠나무는 한우와 함께 장흥군의 대표적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장흥토요시장서 황칠한우 신선육 개발 시식회 개최

황칠나무 기능성 효능 한우에 접목 부가가치 ↑ 기대

다. 이날 시식회에 사용된 한우는 등심과 우둔살 2종류로 참석자 전원이 시식을 마치고 평가서사에 따라 의견을 제출했다.

시식에 사용된 황칠한우는 1kg 당 20ml의 황칠진액을 주입해 숙성한 것으로 일반 한우에 비해 수분 함량은 높이고 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식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황칠한우육이 일반 한우육에 부드럽고 잡내가 적었다고 평가했다.

선호, 보통, 비선호를 묻는 질문에는 90% 이상이 '선호' 의견을 냈다.

장흥군은 황칠나무의 이 같은 기능성을 한우 신선육에 접목하면 한우 품질 고급화와 특화사업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황칠나무의 항산화 효능을 통해 한우육의 품질과 안전성 증대하고 장흥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한우육 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공방법 개발과 연구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황칠한우가 지역 특산물의 가치 향상과 소비시장 개척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무안군, 초·중·고 학생 흡연·음주 예방교육

무안군은 흡연·음주 예방 프로그램인 금연골든벨, 나바시(나를 바꾸는 시간)콘서트, 인형극 중 학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정계중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25개 학교 4,3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음주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토론행식으로 진행해 교육의 효

과를 높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해 금연·절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금연·절주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 어르신들,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매주 화요일 촉탁의 진료



완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임시개소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새정부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원내에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추진 중에 있다.

치매안심센터 건물은 올해 하반기 정식개원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으며, 정식개원 전 치매조기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개소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마을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 치매선별검사를 1,28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상담, 기초검사, 치매예방교육을 1,364명에게 실시했다.

군은 해남종합병원과 협약을 맺고 정신건강의학과 임유이 과장을

촉탁의로 위촉하여 매주 화요일 완도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병원인 해남종합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단비 지원을 받아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치매관련 약을 복용중인 경우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를 발급해 드리고 있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김진종 원장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말고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치매조기검진 및 문의사항은 완도군 치매안심센터(☎550-5810~58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액 일반형 28800원부터 부부형 57600원

진도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 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장규모에 따른 본인 부담액은 일반형 28,800원부터 부부형 57,600원이다. 군은 총 1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가 부담 보험료의 70%를 지

원하며,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에게 상해, 질병 치료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가입 기간은 11월까지이며, 농업인 누구나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지역공감언론정보·정문지침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